

오늘날 새롭게 요청되는

서울대학교구 신학생 양성의 방향과 방법

-사제 양성의 쇄신과 전망-



2016. 6. 17

서울 대학교구 대신학교

목 차

I. 교회와 사제 사명의 재정립

1. 선교 지향적인 사목
2. 선교사 제자로서의 사제

II. 성소 계발과 신학생 양성의 방향

1. 성소의 계발과 육성
2. 신학생 양성의 방향
 - 2.1.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인성과 영성을 수련하기
 - 2.2. 통합적인 지적 교육
 - 2.3. 현대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열린 사목 교육
 - 2.4. 사목자 선교사 양성

III. 신학생 양성의 방법

1.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지향하며
2. 모라또리움(선교체험) 프로그램의 쇄신
3. 방학 프로그램의 활성화
 - 3.1. 영성과 영어 체험 프로그램
 - 3.2. 교구장님과 함께 하는 부제반 이스라엘 성지 생활
4. 보편교회와 연대하며 일하는 사제 양성

IV. 미래에 대한 전망

I. 교회와 사제의 사명 재정립

1. 선교 지향적인 사목

경제지상주의와 과학만능주의, 개인주의와 쾌락주의가 지배하는 21세기의 물질문명 안에서 극심한 인간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복음의 기쁨으로 인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오늘날 더욱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교회의 선교사명』에서 언급하셨듯이(40항 참조), 선교는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자 교회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리스도인의 신원을 “선교사 제자 (missionary disciple)”¹⁾로 규정하셨습니다(120항 참조).

남미 주교단이 발표한 『아파레시다 문헌』은 “사목중심에서 이제는 선교중심”으로 방향을 바꾸고 사목과 선교를 통합하여 “선교하는 사목”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셨습니다(370항 참조).

나아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 선택”을 꿈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27항 참조). 여기서 선교는 교회가 자신의 울타리에만 안주하지 않고 교회 밖의 세상, 곧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변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관습과 행동 양식, 시간과 일정, 언어와 교회의 모든 구조가 자기보존 보다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적절한 경로가 되어야 한다고 교황 권고는 말합니다(『복음의 기쁨』 27항). 본당은 끊임없는 자기 쇄신과 적응을 통하여 친교와 참여의 장소가 되고, 길을 가다가 목마른 이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지성소가 되며, 지속적인 선교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복음의 기쁨』 28항 참조).

1)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요 그분께 파견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점에서 선교사 제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선교사 제자 의 자의식을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표현한다. “저는 이 땅에서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바로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참조 『복음의 기쁨』, 273항)

2. 선교사 제자로서의 사제

사제는 공동체 안에서(ad intra) 신자들을 돌보는 사목자이자(요한21,16)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ad extra)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입니다. 사도(apostolos)가 파견된 사람을 뜻하듯이, 선교사(missionary)라는 말도 파견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28,19-20)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평생의 직무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복음의 기쁨』 24항 참조).

이렇듯 교회의 본질이 선교 사명에 있기에, 사제 양성의 방향도 사목자 양성만이 아니라 “선교사 제자” 양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 인간적 양성(human formation), 영적 양성(spiritual formation), 지적 양성(intellectual formation), 그리고 사목적 양성(pastoral formation)의 네 가지 방향을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사제 양성의 과제로 제시하셨습니다(43-59항 참조). 그리고 모든 교육은 사목적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현대의 사제 양성』 57항). 이제는 여기에 선교사 양성(missionary formation)을 덧붙여 사제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선교사 제자”로 양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 『복음의 기쁨』이 제시하는 사제 양성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II. 성소 계발과 신학생 양성의 방향

1. 성소의 계발과 육성

사제 양성의 방향을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 제자”로 삼으면서 무엇보다 먼저 노력해야 할 과제는 사제성소의 계발과 육성입니다. 극심한 사제 부

족에 시달리는 세계의 많은 교회들에 비하여 아직까지 서울대교구는 비교적 많은 사제성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대교구가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 안에서 성소국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성소자들을 모집하고 육성해왔기 때문입니다.

성소 계발과 성소 육성의 차원에서 서울대교구는 그동안 중학교 1학년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매월 예비신학생 모임을 운영해왔고 특히 동성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2012년부터 매년 35명의 예비신학생반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예비신학생들의 기숙사인 베리타스(Veritas) 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성고등학교 예비신학생반은 일종의 소신학교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선교사 제자” 사제 양성을 위해서는 본당 사제들이 청소년들에게 성소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자부적인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속화와 인구감소의 위기 속에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성소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은총과 책임을 받았다는 사실”(『현대의 사제 양성』 41항)을 자각하고, 전교구적인 차원에서 사제성소의 계발과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신학생 양성의 방향

서울 대신학교는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사명과 현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제 양성을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현대의 사제 양성』이 제시하는 네 가지 방향 외에도 “선교사 양성”(missionary formation)의 관점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신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합니다.

2.1.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인성과 영성을 수련하기

『현대의 사제 양성』은 사람의 조건을 고스란히 수용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인간적인 교육이 기본이 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43항). 사제 양

성에서 인간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제 양성의 전과정은 마치 밑빠진 독과 같은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43항).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라고 천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처럼²⁾, 인성 교육의 핵심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인성 교육은 양심과 연민이라는 도덕성을 함양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적 감성과 건강한 육신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자율성을 기르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사제는 무엇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0,15)고 물으신 예수님께 “예”라고 응답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의 마음을 지니고 자신이 경험한 주님과와의 만남을 증언하도록 파견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사제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모십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성령과 일치를 이루시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안내서이며 하느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보다 전례와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전례는 교회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전례헌장 10항). 하느님 안에서 이웃을 만나고 이웃안에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의미로 공동체는 육화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는 탁월한 장소가 됩니다.

신학교의 양성 프로그램은 양성자와 신학생이 기도와 전례를 중심으로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참조 요한 17,21).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말씀을 나누는 제자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인성과 영성의 성장을 지향합니다.

2.2. 통합적인 지적 교육

『현대의 사제 양성』은 오늘날에도 하느님을 찾고 싶어하고 그 분과 생생하고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향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6항). 그러나 세상은 이를 반드시 종교의 이름으로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2) 2014년 8월18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지회견 때 한 말씀이다.

그리스도교적 가치와 이념들이 익명화되어 문화 안에서 용해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종교적 가치를 정치, 사회, 문화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흡수하는 탈종교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대의 사제는 문화 속에 숨어 있는 복음적 가치는 증진시키고 죽음의 문화로 이끄는 반생명적 요소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투쟁하는 지혜를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 대 신학교에서는 현대의 사제 양성(54항)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학생들이 학제 간의 대화 (Interdisciplinary Dialogue) 방식으로 다른 신학 과목들과 여타 학문들의 내용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학문 분야를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종합하면서 상호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강좌나 세미나 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 교육은 신앙의 체험을 바탕으로 신학과 인문과학, 자연과학, 타종파 및 타종교 그리고 진·선·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지적, 예술적, 윤리적 활동을 하느님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와 대화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참조. 복음의 기쁨 243항).

2.3. 현대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열린 사목 교육

모든 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본당에서 주일학교와 청년회 활동 및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본당 사목 외에도 청소년 사목, 노인사목, 직장사목, 병원사목 등 다양한 분야에 사목적 관심을 갖도록 방학 프로그램이나 모라토리움 그리고 세미나와 특강을 통하여 신학생들을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목 분야에 종사 하든지 오늘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제의 직무는 성실하게 강론을 준비하고 좋은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론은 사제의 신앙체험과 예언자적 전망, 사목적 사랑과 복음적 윤리 등이 복음 선포의 방식으로 종합되어 짧은 시간이지만 신자들과 가장 강렬하게 만나는 기회의 장이 됩니다. 신자들은 강론을 통하여 신앙의 기쁨과 위로를 받고 올바른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에서 강론의 중요성과 강론 준비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111-175

향). 그러므로 신학교는 신학생들에게 강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좋은 강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학생들은 방학이나 모라토리움 기간에 다양한 사목실습을 하고 이 과정에서 수도자들과 평신도들과 함께 공동 사목자로 일하는 열린 마음과 대화의 자세를 익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4. 사목자 선교사 양성

한국 교회는 북한 선교와 중국 선교를 대상으로 북방선교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북한 연구와 국내의 탈북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와 선교가 요청됩니다. 그리고 서울대교구는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소자들을 위해 “옹기장학회”를 통하여 북방 선교 사제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교구장님은 2014년 9월 21일 교령(Decretum)을 통하여 “레뎀토리스 마테르(Redemptoris Mater) 국제 선교 신학원”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열 명의 외국인 신학생들을 서울 대신학교(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공부시키며 특별히 아시아와 북한 선교를 위한 “선교사 제자”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현재 한국교회는 6개 대륙 74개국에 선교사 952명(교포사목 제외)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전체 선교사 중 사제는 200명으로 21%를 차지합니다.³⁾ 해외 선교에 지원하는 교구사제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사제들이 해외 선교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 국내 선교 및 사목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선교를 경험한 사제들은 “해외 선교가 활성화되려면 신학교에서부터 해외 선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 비중 있게 가르쳐야”하고, “해외선교에 대한 교구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신학생들의 해외 선교체험은

3) 해외 선교를 위해 파견되어 있는 교구 사제는 총 99명으로 서울대교구와 대구대교구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교구(14명), 수원교구(14명), 의정부교구(13명)가 뒤를 이었다. 2015년 말 현재 전국 교구 사제는 4,190명이므로 해외선교 사제 비율은 2.4%에 그치고 있다. 서울 대신학교에는 “선교반”이라는 동아리가 2009년에 창립되어 훗날 사제가 되어 피데이 도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장차 사제가 되어 “피데이 도눔 선교사”의 길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데이 도눔 선교사로 파견된 사제들은 대부분 신학생 때 선교를 체험한 분들입니다. 모라토리움과 방학 기간은 해외 및 국내 선교 체험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III. 신학생 양성의 방법

1.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지향하며

서울 대신학교는 1991년부터 5개의 소공동체(양업관, 대건동편, 대건서편, 강학관, 수덕관)로 나누어져 공동체 안에서 형제애가 넘치는 복음적인 삶을 지향해왔습니다. 각 공동체에는 원감신부, 생활지도신부, 영성지도신부를 중심으로 동별 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독립적인 소 신학원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전례적인 양성을 위해**, 평일 미사는 동별로 실시하고 생활 성가를 밴드에 맞춰 일주일에 1번 이상 노래함으로써 젊은이들의 정서에 맞는 찬양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각 공동체별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씩 영어미사와 성무일도를 바치고 한 달에 한번 씩 대성당에서 라틴어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교회의 전통과 이 시대의 사목적 필요에 부응하는 전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동별 내지 수석 자치회가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여러 가지 교내 봉사활동을 통하여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봉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대략 40%에 이르는 신학생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공부방이나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 **신학교의 전통적인 덕목인 3S(지·덕·체)의 수련을 위해**, 신학생들은 체육 및 다양한 구기 종목을 익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성의 해를 사는

양업관의 1-2학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에 체육 전문가로부터 한 종목씩을 배우는 '1인 1기'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문화적인 양성을 위해**, 이 시대의 젊은이에게 필요한 문화적 감수성을 계발시키는 다양한 문화 활동(음악, 미술, 연극, 운동 동아리)과 학술 활동(학술 동아리) 그리고 문화 행사(연극, 음악회 등)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5) **자연에 대한 감사와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화단 가꾸기와 채소 재배 그리고 정기적인 외곽 청소를 공동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육체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고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우주적인 친교(『찬미 받으소서』 89항)의 감수성이 함양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6) **무엇보다 복음적인 소 공동체를 위해** 매주 생활조 모임을 통하여 친교를 나누고 2주에 한번 씩 원감신부가 참여하는 “말씀 및 생활 나누기”를 실시하여 복음적 제자 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날마다 복음 일기를 작성하고 신학생들의 삶을 돌아보는 양심성찰과 기도를 통하여 제자로서의 삶을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7) **세상에 열린 마음을 갖도록** 방학 중에는 학년별로 다양한 사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유럽 어학연수, 해외문화탐방, 국제봉사단, 학습커뮤니티, 학부 졸업반의 백두산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8) **신학생들의 영성수련을 위해**, 5학년 여름방학 때에는 8일 피정을, 겨울 방학에는 한 달 간의 영신수련을 시행하여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자신의 마음자리를 살피도록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9) **신학생들의 영성적인 성장을 위해** 영성지도신부들이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토요일 오전에 영성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신학생들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심리 상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신학생

들과 개별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모라토리움(선교체험)⁴⁾ 프로그램의 쇄신

Moratorium은 한국 주교회의가 펴낸 『한국 사제 양성 지침』(제10장 39조 4항)에 따라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실시하는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신학생들은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동안 모라토리움(현장체험)을 하면서 인간적인 성숙과 사목자 양성을 받습니다.

서울대교구 주교평의회(2015.7.1)는 교구장님의 뜻에 따라 모라토리움(선교체험)의 대상을 신학과 2년과 군복무를 마친 ‘본반’ 학생들뿐 아니라 이미 군복무를 마치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을 수료한 ‘별반’ 학생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선교 중심의 모라토리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모라토리움 프로그램은 국내 교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을 위주로 구성되었고, 해외 선교체험의 기회는 단지 일부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신학과 2학년을 마친 모든 서울대교구 신학생들이 적어도 6개월간 (경우에 따라서는 9개월 정도) 해외 선교지에 파견되어 3개월간 언어공부를 하고 남은 기간은 현지 선교사제(서울, 의정부 교구 선교사제 및 한국 외방전교회, 메리놀 국제 선교회, 골롬반 국제 선교회, 과달루페 선교회, 파리 외방 선교회 선교사제)와 함께 살며 선교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에는 국내에서 교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현장체험을 합니다.

올해 3월초부터 서울대교구 소속 24명의 신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해외 선교지(일본 4명, 중국 2명, 홍콩 4명, 필리핀 2명, 인도 2명, 파푸아 뉴기니아 2명, 아르헨티나 5명, 페루 1명, 과테말라 2명)에 파견되어 6개월에서 9개월의

4) Moratorium은 본래 유예를 뜻하는 단어이다. 모라토리움을 통하여 선교사 제자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모라토리움 (선교 체험, missionary practicum)이라고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사제양성지침에 사용된 “현장체험”은 군복무까지 포함하는 넓은 기간의 체험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교구 신학생 양성지침에서 모라토리움(선교체험)은 군복무를 마치고 3학년에 복학 이전의 1년간의 과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국한된다.

기간으로 선교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학과 2학년 과정과 군복무를 마친 신학생들은 본반과 별반 모두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스스로 선택한 나라에 파견되어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3월-8월) 선교체험을 하고, 남은 기간 4개월(9월-12월) 동안 국내 교회기관이나 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친 신학생들은 익년 1월중에 피정을 통하여 지난 1년간의 체험을 함께 나누고 정리하면서 모든 모라토리움(선교체험) 프로그램을 종결하고 신학과 3학년 복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3. 방학 프로그램의 활성화

신학생들에게는 사제 서품 전까지 통상 14번의 방학이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방학 중에 본당에서 청소년 사목과 관련한 사목실습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선교사 제자 양성에 필요한 보다 다양한 체험과 언어습득을 위해 방학의 일부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방학의 일부를 이용하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라는 교구장님의 방침에 따라 서울 대신학교는 다음의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3.1. 영성과 영어 체험 프로그램

(Spiritual and English Experience Program : 약칭 SEE 프로그램)

SEE 프로그램의 취지는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영성의 해'를 할 수 없는 한국적인 현실에서 영성의 해를 보완하고 영어로 생활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SEE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은 신학과 1학년과 2학년으로서 1학년 여름방학(7월)과 겨울방학(1월)을 이용하여 각 4주간 씩 신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영성강화 및 공동체 생활 그리고 영어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2학년 여름방학(7월) 중에는 영어권 아시아 국가(필리핀, 인도 등)의 교회에 파견하여 현장체험을 하

고, 겨울방학 중에는 본반 신학생은 군입대, 별반 신학생은 모라포리움을 준비하게 됩니다.

2016년부터 적용될 신학과 1학년 SEE 프로그램의 목표는 신학생들이 7월과 1월 각각 4주씩 신학원 일과에 맞추어 영어 성무일도와 영어 미사, 기도와 대침묵을 지키게 하고, 영어수업, 영어 원서 독서 및 토론, 식사 중의 영어 대화, 운동 및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인간적, 지적, 영적 능력의 배양과 영어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영성교육> 영성지도신부들의 영성 면담과 영적 독서 그리고 대침묵과 기도 및 전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인성교육> 원장 신부, 양업관 원감 신부와 영성의 해 지도 신부 및 양성소 위 총무신부가 교대로 신학생들의 전례와 식사시간에 함께 하면서 동반자로서 생활하고 그룹별 나눔과 운동등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수행됩니다.

<영어교육> 성심교정 국제언어교육원 원어민 교수들을 초빙하여 신학교에서 실시합니다.

<영어미사 및 강론>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교사 신부님이 담당하고 필요에 따라 신학교 신부님들이 참여합니다.

<선교교육> 외국인 선교사 특강을 통해 선교 체험 및 선교 영성을 배우게 합니다.

<주말에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본당이나 자택으로 돌아가서 사목실습과 휴식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2017년부터 적용될 신학과 2학년 SEE 프로그램의 목표는 신학생들이 7월 한 달 간 영어권 아시아 교회의 현장(교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 파견되어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복음적 가난과 선교영성을 체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3.2. 교구장님과 함께 하는 부제반 이스라엘 성지 생활

서울 대신학교 부제반(의정부교구, 수도권 포함)은 2010년부터 매년 11월말에 약 열흘의 기간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실시해 왔습니다. 교구장님께서서는 2016년 6월 3일 사제성화의 날에 내년부터 7월 4주 동안(7월 3-29일) 갈릴래아에 위치한 Domus Galileae International Center에서 서울대교구 부제들과 함께 생활하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⁵⁾ ‘교구장님과 함께 하는 부제반 이스라엘 성지생활’ 프로그램은 성지순례, 공동기도와 성경 공부, 그리고 교구장님과 부제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하여 교구 사목자 선교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친교를 나누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부제들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1,15)라고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시고 양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기신 예수님과 함께 갈릴래아 호숫가를 거닐면서 완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선교사 제자” 사제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4. 보편교회와 연대하며 일하는 사제 양성

오늘날 지구촌은 세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2천년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진출하는 적극적인 선교활동으로 세계화 내지 국제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서울 대신학교도 보편교회와 연대하며 보편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제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서울 대신학교는 사목연구소와 신학과 사상학회⁶⁾를 통하여 학술지를 간행하고 학술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신학 발전과 신학생들의 신학 연찬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 대신학교는 1989년부터 「가톨릭 신학과 사상」을, 그리고 1994년부터 「사목연구」를 학술지로 펴내고 있습니다.

5) 2017년 부제반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6) 신학과 사상학회는 서울 대신학교 교수신부들이 주축이 되어 2007년 4월에 창립되었고 신학교의 인적, 물적 지원과 일반 후원을 받아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2) 서울 대신학교는 정기적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아시아 및 다른 대륙의 신학자들과 신학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아시아 신학 및 가톨릭 신학과 사상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신학교가 협찬하고 '신학과 사상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지 「가톨릭 신학과 사상」(*Catholic Theology and Thought*)이 2015년부터 전면 영어로 간행되어 국제적인 학술지로써 가톨릭 신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서울 대신학교는 2014년부터 영어권 신학 교수들을 초빙하여 매학기 영어 신학강의를 개설함으로써 신학생들이 국제적인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4) 서울 대신학교는 제1외국어인 영어뿐 아니라 제2외국어로 불어,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내년부터 개설 예정) 강좌를 개설하여 많은 신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중급이상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실시되는 모라토리움 기간 중에 익힌 제2외국어를 3학년부턴 부제반에 이르기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공부한다면 사제 서품을 받을 때에는 상당한 제2외국어 실력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서울 대신학교는 1999년부터 중국 신학생 4명, 방글라데시 신학생 2명, 베트남 신학생 1명을 초청하여 사제로 양성하였고, 현재에도 10명(베트남 4명, 중국 4명, 미얀마 2명)의 아시아 교회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6) 서울 대신학교(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는 2017년부터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이 인정하는 신학 학사(STB)과정을 실시합니다. 서울 대신학교는 국내 신학생들뿐 아니라 늘어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도 교황청이 부여하는 학위를 받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은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가톨릭 교육성이 요구하는 교과 과정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와 교회로부터 공인을 받는 더욱 책임 있는 신학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에 교회법 석사 학위 과정을 신

설할 계획이다. 필리핀의 산토 토마스 대학교의 교회법 대학원과 연계하여 (aggregated) 가톨릭교육성의 인증을 받아 교회법 석사(JCL) 학위를 수여하기 위하여 2017학년도 제1학기부터 신입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듯 서울 대신학교는 서울과 의정부 교구 소속 신학생들이 여러 아시아 교회 출신의 신학생들과 레뎀토리스 마테르 국제 선교 신학원 소속의 다양한 국적의 신학생들과 더불어 살고 공부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보편교회와 연대하며 일할 줄 아는 사제로 양성되도록 계속해서 열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IV. 미래에 대한 전망

금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SEE 프로그램, 선교 체험 중심의 모라토리움 확대 실시,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교구장님과 함께 하는 부제반 성지생활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는 서울대교구가 교구장님을 중심으로 이 혼란한 시대에 선교사 제자의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신학생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1.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교구 사제로서 본당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합니다. 본당은 그 지역에서 사는 교회의 현존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 생활이 성장하는 장소이며, 대화와 선포, 아낌없는 사랑과 실천, 그리고 예배와 기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복음의 기쁨』 28항).

2. 그러나 미래의 사목은 본당에 앉아 “기다리는 사목”으로만 머물지 아니 하고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 나선 예수님처럼(요한 4장) 진리와 생명에 목마른 사람들을 찾아 “떠나는 선교”(마르1,38)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신학생 양성은 교구내의 다양한 영역(청소년, 노인, 노동자, 병자, 은퇴자, 탈북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서 지역사회와 현장을 중심으로 사목하는 진취적인 선교 사목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떠나는 선교”에는 다양한 대상이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특히 선교의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셨습니다⁷⁾. 현재 서울 대교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목사목, 선교본당, 학교, 병원, 이주민, 탈북자, 직장사목, 사이버 사목, 자살예방 및 여러 중독치료 사목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 중심의 선교 사목이 더욱 분야별로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다양한 “선교 선택” 중에서 오늘날 서울 대교구에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해외 선교입니다. 피데이 도눔 선교사 활동은 보편교회와 연대하여 일하고자 하는 사제들에게 적합한 소명이면서 동시에 서울대교구의 현실에서 요청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⁸⁾. 서울 대신학교가 금년부터 도입하는 일련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신학생들이 장차 사제가 되어 보편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소명 의식을 고취시키고 선교에 필요한 언어 습득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4. 비오 12세 교황님은 1957년 4월에 Fidei Donum 회칙을 발표하고 사제가 부족한 타 교구에 파견되어 일정기간 선교사로 활동하고 본 교구로 귀환하는 피데이 도눔 선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많은 피데이 도눔 선교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에도 열다섯 분의 사제가 피데이 도눔 선교사로 여러 나라(프랑스, 스페인, 일본, 중국, 대만, 호주, 탄자니아, 과테말라, 페루)에 파견되어 보람 찬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 교구장님은 2014년 2월에 해외선교봉사국을 만드시고 피데이 도눔 선교사 파견을 장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원자가 적은 상태입니다⁹⁾. 아마도

7) 『복음의 기쁨』 176-258항.

8) 현재 신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숫자는 평양교구, 레뎀토리스 마페르 국제선교 신학원을 포함하여 36명에 이르고 이들 중 최근의 통계상 70%에 해당하는 약 25명 정도가 10년 후에 사제서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소국이 주관하는 성소자 모임에 참여하는 예비신학생들의 숫자는 중학교 1학년부부터 대학 졸업자까지 약 800여명이다. 현재의 신입생 숫자가 향후 최대한 10년 정도 지속된다면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는 약 500명의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기간에 은퇴 사제가 약 300여명에 이른다고 가정하더라도 20년 후에 현역으로 일하게 될 사제 숫자는 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현재 229개의 서울대교구 본당 숫자가 앞으로 의미 있게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9) 현재 지원 사제 모임 명단에 14분의 사제들이 등록되어 있다.

언어와 외국 생활에 대한 낯설음과 두려움 때문에 선포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6. 그러나 서울대교구의 사제들 가운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피데이 도눔 선교사를 지원하고 일정기간 해외선교를 마치고 교구로 돌아오는 일이 앞으로는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피데이 도눔 선교사 파견이 교회와 사제 자신에게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느님께서 많은 사제성소를 주신 한국 교회 특히 서울대교구가 사제가 부족한 곳에 사제들을 파견하는 일은 보편교회와 연대하는 가장 확실한 복음적 나눔의 방법입니다.

둘째, 피데이 도눔 선교사로 파견되는 일은 선교사 개인의 노고와 헌신을 통하여 지역교회에 도움을 주고 본인에게는 사제적 신원의식을 강화하는 소중한 체험의 기회가 될 것이며, 교구로 귀환한 다음에는 교구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선순환을 일으킬 것입니다.

셋째, 치열한 생존경쟁의 세상살이에서 찌들리고 위축되어 참된 행복을 목말라 하는 젊은이들에게 피데이 도눔 선교사의 복음적인 삶은 큰 자극과 도전을 불러일으키면서 성소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이처럼 서울 대신학교는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신학생들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대교구 대신학교는 신학생들이 서울대교구와 보편교회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파견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선교사 제자”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고자 합니다.

2016. 6. 17.

서울대교구 대신학교 학장 백운철 신부